

청소년의 對人환경 및 성향과 인터넷 몰입의 관계

임 성 택* · 김 성 현** · 김 진 호*** · 배 종 선****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에서 위치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287명이었다. 조사에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인환경', '대인성향', '인터넷몰입'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와 문항이 사용되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중 청소년의 인터넷몰입은 응답자의 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반면, 학교급,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교성적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둘째, 대인환경변인중 부-모간의 관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으며, 형제자매 관계, 부모-자녀 관계, 친구관계는 유의있는 관련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의 성격적 특성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대인기피 성향은 인터넷몰입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환경변인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을 비교한 결과 대인환경이 대인성향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인터넷 몰입, 대인환경, 대인성향

- * 순천대학교 교수
**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신안지명중학교 교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의 출현으로 우리는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이라는 두 세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 공유 및 교환, 각종 거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로 하여금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었던 현실공간을 벗어나 무제한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었다. 생활의 편리라는 수단적 기능만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타의 문명의 이기들과 비교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그 성격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수단적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 보급의 확대에 형성된 사이버 공간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사회와 커뮤니티의 세계를 열어 놓았다. 사이버 공간의 형성은 제한된 현실공간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장이 아니라 현실공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공간 형성을 의미한다. 공간의 환경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현실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 특징인 익명성은 비익명성의 현실공간에서 제약받았던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보상적 기능을 하게 된다.

예컨대, 사이버 공간 속에서 개인은 다중 정체성을 형성하여 ‘나’와 다른 모습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여 다른 역할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 연령, 성을 초월하여 개방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심한 성격과 수줍음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정기선, 2000; 황상민·안규석, 1999).

이러한 점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사이버 공간에 몰입하면 할수록 그

만큼 현실공간에서의 이루어지는 비익명성의 면대면(face to face) 사회적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에서의 좌절 경험을 증폭시키는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즉, 현실공간에서의 대인관계 좌절경험과 이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성향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사이버공간에서 해소하게 하고,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몰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야 하는 발달과업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발달로 자신의 존재와 독특성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욕구가 분출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공간에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그 속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불평등한 관계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현실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불만족하고 이를 기피하게 되며, 그 결과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대안적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집착과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평등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가 가능한 익명의 사이버공간은 청소년에게 불평등한 지위의 현실공간으로부터 탈출구이자, 매우 매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그로 인해서 형성된 대인성향은 그들의 인터넷 몰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공간에서의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이 그들의 인터넷 몰입을 설명하는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은 인터넷 몰입에 대한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의 설명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와 인터넷 몰입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환경변인과 성격변인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다. 인터넷 몰입이라는 행동과 관련된

설명변인을 환경 변인과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설명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밝힌 인터넷 중독 및 몰입과 관련된 변인들은 다양하였지만 아직 탐색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포함된 인터넷 중독 및 몰입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설명효과가 변인의 성질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없이 개별적으로 분석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책과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제한되었다.

지금까지 여타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다양한 원인들이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분류되어 진단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의 정책과 개입전략이 수립되어 왔다. 인터넷 몰입 역시 일종의 청소년문제행동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청소년의 대인관계 변인을 환경적 요인과 성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상대적 설명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과 개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청소년의 대인환경 및 대인성향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설명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청소년의 대인환경변인과 대인성향변인은 각각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하여 유의있는 설명효과를 보이는가?

셋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대인성향변인의 설명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청소년의 대인환경변인은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하여 유의있는 설명효과를 보이는가?

넷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대인환경변인의 설명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청소년의 대인성향변인은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하여

의의있는 설명효과를 보이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해 대인환경변인과 대인성향변인 중 어떠한 변인(군)이 더 큰 고유설명력을 가지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인터넷 몰입 관련이론

인터넷 몰입 또는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특성과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손경애, 2003).

첫째, 인터넷 특성이론은 인터넷 몰입을 인터넷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터넷의 속성이 긍정적인 강화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King(1996)은 인터넷 속성으로 독특한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가상세계에서의 잠복성을 들고 있다. 즉,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전자메일, 채팅룸, 게시판 등 수많은 종류의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Greenfield(1999)는 1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은 강한 친밀감(intense intimacy), 탈금제(disinhibition), 현실과의 경계상실(loss boundaries), 시간개념의 상실(timelessness), 통제로부터의 이탈감(feeling out of control) 등의 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성외(2002)는 인터넷의 특성을 익명성과 탈금제, 개방성과 평등성, 초월성과 가상성, 연결성과 전파성으로 정리하였다. 즉,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실제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익명성, 대면적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고 구속감을 적게 느끼며,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탈금제,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개방성, 사회적 지위, 권력, 권위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평등성의 특성이 발현된다. 또한,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초월성,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지나 상상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는 가상성,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각과 관심의 공유를 바탕으로 쉽게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성, 정보나 메시지가 신속하게 전달되는 전파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사람들은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약화됨으로써 인터넷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일순, 2000).

둘째, 욕구충족이론은 인터넷 몰입을 인간의 욕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Suler(1996)는 인터넷 몰입현상과 관련하여 Maslow의 5단계 욕구위계이론을 원용하여 인간의 욕구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희롱 및 완전한 익명성에 의해서 충족되며, 소속감 및 애정의 욕구는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존경의 욕구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영향을 빠르게 인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의 내적인 관심과 태도, 그리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성격을 깨닫게 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King(1996)은 욕구충족의 시각에서 게임중독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게임은 인간의 의사소통 욕구와 관음증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온라인이 제공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게임상에서 수많은 종류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적극적인 인간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적 교류의 폭을 넓혀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관음증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Young(1997)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지지, 성적인 만족, 새로운 인격창출, 숨은 성격의 발현, 영향력 획득 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명준 외(2001)는 접근가능성, 시공간적 한계의 극복, 문자에 기반한 의사소통 등의 인터넷의 속성으로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현실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병리적으로 인터넷에 집착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인터넷 몰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인터넷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이 접속되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청소년의 삶의 일부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몰입이나 인터넷중독 증은 청소년들이 장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에도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논의되어 왔다(천정웅, 2000). 그러나 인터넷몰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해방구로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교적 여타의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네트워크 게임, 채팅, 사이트 서핑 등을 통해 입시

공부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이성이든 동성이든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수 있는 기회, 동호회활동을 통해 자기와 유사한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 현실속의 자신과는 다른 자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신이 한 집단의 중심인물이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현실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주며, 성(性)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상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자신을 무시하는 성인이나 또래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아를 세울 기회를 제공해 준다(윤영민, 2001). 특히, 청소년들에게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은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활동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생활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남근·양돈규, 2001).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학 이외의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인정은 청소년에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우석, 2005).

반면, 청소년의 인터넷몰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강조한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무수히 많은 음란물 접촉, 음란성 채팅과 사이버성폭력, 해킹 등 사이버일탈행위와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몰입 및 중독 등은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혜원(2001)은 사이버공간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터넷중독, 사이버공간에서 접하는 정보나 사람들의 유해성, 익명성으로 인한 다양한 일탈행위의 위험, 자기분절(self-fragmentation)과 정체성 위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을 통해 유해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써 파생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달리 지나친 인터넷과의 접촉 자체를 통해 점차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응적 기능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다모임’에서 10대 네티즌 11만 3천 9백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2)에서도 10대 청소년의 대다수가 인터넷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장시간 동안의 인터넷 몰입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체력저하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고, 면역체계가 약화되며, 운동부족과 눈의 통증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경제적 손실과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선, 1999; 김종범, 1999; 김진희·김경신, 2004; 서우석, 2005; 성운숙, 2003; 오대영, 2002; 유승호·정의준, 2001; 임은미, 1999; 이소영, 2000; 이송선, 2000, 이형초, 2001; 조찬식, 2002).

이상에서와 같이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터넷몰입이 문제적 행동이라고 선형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며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을 중독적 범주에 넣고 그 문제점 양상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호외, 2001; 한안석, 2000; 이덕로, 정덕진, 손경애, 2002; 송명준외, 2001, 최민정, 200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그리고, 인터넷중독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인터넷사용에 대한 집착과 자기조절능력 상실이 가장 큰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몰입은 병리적 행동인 인터넷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관련변인

지금까지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였는데, 이들은 크게 인터넷 몰입이나 중독의 결과변인을 탐색하는 것(박명순·박성은, 2004; 양돈규, 2000b; 서주현·유안진, 2001; 유승호·정의준, 2001; 등)과 인터넷 몰입이나 중독의 설명변인을 탐색하는 것(양돈규, 2000a; 송수민·이희경, 2002; 이희경, 2003; 김희화, 2003; 손경애, 2003; 김혜원, 2001; 조아미·방희정, 2003; 서우석, 2005;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가 인터넷 중독이나 몰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점들을 탐색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터넷 중독이나 몰입의 원인이 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 몰입이라는 행동과 관련된 설명변인을 개인적 특성변인과 환경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설명효과를 비교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후자를 중심으로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경험과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 인터넷 중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2000; 김혜원, 2001; 안정임·김동규, 2000; 서주현·유안진, 2001; 양돈규, 2000b; 윤영민, 2000).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주노의 연구(2000)에서도 인터넷 사용경력이 많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더 높았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돈규(2000b)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중독 경향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아미·방희정(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인터넷 몰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김희화(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인터넷비행관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우석(2004)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

이 높은 학교에서 인터넷의 과다사용과 학교생활만족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별,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등이 청소년의 인터넷몰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인환경변인과 관련하여 인터넷 몰입이나 중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온 요인들은 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인간관계요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원인으로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망이 축소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희경, 2003).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대학의 컴퓨터 중독센터장인 Orzack(1999)은 컴퓨터 중독의 문제가 컴퓨터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현실을 회피하거나 혹은 미루고, 탈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외롭고 지루하거나, 방과후 집에 아무도 없는 아동들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사용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연구가 증가되면서, 이들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김성중, 2000; 김진희·김경신, 2004; 김혜원, 2001; 은혁기, 2000; 이희경, 2003; 양돈규, 2003; 윤영민, 2001; 조아미·방희정, 2003). 예컨대, 인터넷중독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윤영민,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부모의 감독이나 일방적인 지시행동이 높을수록(윤영민, 2000; 조춘범, 2001),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간관리를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김혜원, 2001; 박정은, 2001),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김교현, 2001),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김혜원, 2001; 안석, 2000) 인터넷사용에 있어 중독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과 또래관계에 대

해서도 일반적으로 친구가 없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혜원, 2001; 안정임·김동규, 2000; 윤영민, 2001).

대인관계성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증은 현실생활에서 소극적이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에게 더 쉽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Young(1996)은 자존감이 낮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어기준(2000)은 게임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현실에서 나약한 청소년이 가상공간의 게임을 통해서 캐릭터에게 부여된 막강한 힘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파워맨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소영(2000)의 연구에서는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협상능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임·김동규(2000)와 윤영민(2000)의 연구에서도 친구가 없는 청소년일수록 중독증상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인관계 기피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성격적 특성과 인터넷 몰입 혹은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는 거의 부재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287명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표집되었다. 연구주체의 성격상 조사대상

자 287명 모두 학교와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들만으로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도농 통합형 지역의 시부와 읍면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었다. 표집방법은 학급단위의 임의 표집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성별, 학교급별로 일정한 비율로 표집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계열별(일반계-실업계) 비율도 고려하였다.

2. 조사도구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 조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학교급별, 계열별, 부모의 교육정도, 경제적 여건, 학교성적 등이 조사되었는데, 이중 성별은 남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으며,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집단이었는데, 중학교 학생청소년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5단계(1=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2=초졸 및 중학교 중퇴; 3=중졸 및 중학교 중퇴; 고졸 및 대학교 중퇴; 5=대졸 이상)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경제적 여건과 학교성적을 묻는 문항은 5품등 척도(경제적 여건은 ‘아주 잘사는 편~아주 못사는 편’ 그리고 학교성적은 ‘아주 잘하는 편~아주 못하는 편’)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2) 대인환경변인 조사

청소년의 대인환경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환경을 의미하는바,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간 혹은 자신과 그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중요한 타자로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부-모간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5품등 척도(매우 화목하다~매우갈등이 심하다)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적환경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도록 점수를 부여하였다.

3) 대인성향 검사

청소년의 대인성향 검사는 한국형 MMPI의 성격검사중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발췌하여 임영란이 재구성한 25문항을 윤재희(1998)가 다시 9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대인관계 곤란 검사]를 사용하였다. MMPI 척도에 근거한 척도이기 때문에 이 검사는 앞서 제시한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각과는 달리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검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며, 사회적 장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적 특성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문항으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5품등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곤란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4) 인터넷 몰입 검사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이 개발한 20문항의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품등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흔히 인터넷 중독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된다. Young의 기준에 따르면, 이 척도에서 20-49점인 경우 일

반적 사용자로 인터넷 사용정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50-79점인 경우에는 중독경향자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종종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며, 80-100점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자를 진단하고 분류하기 보다는 연속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열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몰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양호한 편이었다.

3. 자료 분석

연구문제별로 각기 다른 자료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우선 인터넷 몰입과 대인환경변인 및 대인성향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다음에 있을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인간의 중다공선성을 확인하는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각 독립변인군별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한 설명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련의 위계적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에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인터넷 몰입에 대한 이들의 설명효과를 통제된 뒤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 설명량(semi-partial R^2 ; ΔR^2)을 각각 산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몰입에 대한 두개의 독립변인군(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 설명량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대 독립변인(군)과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설명량을 동시에 통제한 후 해당 독립변인(군)의 고유 설명량을 각각 산출하여 그 설명량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터넷 몰입과 대인환경 및 대인성향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인터넷 몰입과 관련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	1.00											
V2	-.21**	1.00										
V3	-.09	.38**	1.00									
V4	-.13*	.61**	.47**	1.00								
V5	-.14*	.25**	.25**	.35**	1.00							
V6	.22**	-.09	-.22**	-.17**	-.09	1.00						
V7	-.18**	.00	.14*	.07	.22**	-.18**	1.00					
V8	-.01	.08	.13*	.10	.25**	.08	-.03	1.00				
V9	.04	.05	.01	.05	.13*	.06	.06	.00	1.00			
V10	.05	.01	.07	.09	.17**	-.04	.04	.02	.54**	1.00		
V11	.01	-.04	.10	-.03	.12*	.07	.02	.45**	-.10	-.02	1.00	
V12	.08	-.05	-.02	-.13*	.08	.12*	-.05	.23**	-.12*	-.06	.29**	1.00

주: V1=인터넷몰입, V2=부모관계, V3=형제관계, V4=부모자녀관계, V5=친구관계, V6=대인곤란, V7=성, V8=학교급, V9=부교육, V10=모교육, V11=경제수준, V12=학교성적
*p<.05, **p<.01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간의 중다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성이 낮아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간의 중다공선성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을 이후의 회귀분석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었다.

2.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환경변인과 대인성향변인의 설명효과 비교

1)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환경변인의 고유설명량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한 청소년의 대인환경변인의 고유 설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환경변인군의 고유설명량 산출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287)

변 인	회 귀 모 형		
	I	II	III
<u>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u>			
여자(준거집단: 남자)	-.18(1.54)**	-.15(1.54)*	-.14(1.56)*
학교급	-.05(1.74)	-.06(1.71)	-.02(1.73)
부교육 수준	.05(0.85)	.02(0.84)	.04(0.83)
모교육 수준	.05(1.00)	.07(0.99)	.06(0.98)
경제적 수준	.02(0.97)	.02(0.96)	.00(0.05)
학교성적	.09(0.77)	.07(0.76)	.07(0.76)
<u>대인성향</u>			
대인기피성향	-	.19(0.11)***	.18(0.11)**
<u>대인환경</u>			
부-모 관계	-	-	-.23(0.85)**
형(자)-제(매) 관계	-	-	.04(0.75)
부모-자녀 관계	-	-	.06(0.97)
친구관계	-	-	.09(0.93)
상 수	57.54	48.11	53.96
총 설명량; $R^2(F)$	.047(2.28)*	.081(3.52)**	.128(3.66)***
고유(증분)설명량; $\Delta R^2(F)$	-	.034(10.47)***	.047(3.68)**

주: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이며, 표 상단 ()안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표준 오차이며, 표 하단 ()안의 수치는 F값임. *p<.05, **p<.01, ***p<.001

회귀분석 모형 I 은 통제변인군으로 설정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부모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만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회귀분석 모형 II에서는 모형 I 의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과 더불어 대인성향 변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의 전체 설명량을 통제한 후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 III에서는 모형 II에 대인환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으로써 사회인구학적변인들과 대인성향변인의 총 설명량을 통제한 후 대인환경변인들의 고유설명량을 산출하였다.

먼저 회귀모형 I 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변인군중 성별만이 인터넷 몰입을 유의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성은 인터넷 몰입에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 부모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은 인터넷 몰입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이 인터넷 몰입을 설명하는 총 변량은 4.7%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지만($F=2.28, p<.05$),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의 변인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설명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 II의 경우, 모형 I 에서의 독립변인인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에 대인성향변인을 추가하여 얻은 총 설명변량은 8.1%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었다($F=3.52, p<.01$). 그 중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대인성향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량이 3.4%였는데, 이 증분(고유)설명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F=10.47, p<.001$)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의 설명효과를 통제한 후, 대인성향변인이 인터넷 몰입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추가된 변인의 수가 단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추가 설명효과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대인성향은 대인기피성향을 의미하는 바, 회귀계

수는 대인기피성향과 인터넷 몰입이 정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인기피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이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 Ⅲ의 경우, 모형 Ⅱ에 4개의 대인환경변인들을 추가하여 얻은 총 설명량은 12.8%로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의 있었다($F=3.66, p<.001$). 그리고 모형 Ⅲ에서는 사회인구학적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대인환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량이 4.7%였는데, 이 증분(고유)설명량 역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F=3.68, p<.01$)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설명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대인환경변인군이 인터넷 몰입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효과가 의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4개의 대인환경변인들(부-모 관계, 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중 인터넷 몰입에 대해 의의 있는 관련성을 가졌던 대인환경변인은 부-모 관계뿐이었으며, 이 변인이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환경변인군의 설명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회귀계수에 의하면, 부-모간의 관계와 인터넷 몰입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에 더 몰입한다는 것의 의미하는 것이다.

2)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성향의 고유설명량 분석결과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성향의 고유설명량 분석은 앞의 대인환경의 고유설명량 분석과 비교하여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경우 앞의 회귀분석과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다.

<표 3> 인터넷 몰입에 대한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 산출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287)

변 인	회 귀 모 형		
	I	II	III
<u>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u>			
여자(준거집단: 남자)	-.18(1.54)**	-.16(1.57)**	-.14(1.56)*
학교급	-.05(1.74)	-.01(1.75)	-.02(1.73)
부교육 수준	.05(0.85)	.07(0.84)	.04(0.83)
모교육 수준	.05(1.00)	.05(1.00)	.06(0.98)
경제적 수준	.02(0.97)	.01(0.96)	.00(0.05)
학교성적	.09(0.77)	.09(0.76)	.07(0.76)
<u>대인환경</u>			
부-모 관계	-	-.23(0.86)**	-.23(0.85)**
형(자)-제(매) 관계	-	.01(0.76)	.04(0.75)
부모-자녀 관계	-	.05(0.99)	.06(0.97)
친구관계	-	-.10(0.94)	-.09(0.93)
<u>대인성향</u>			
대인기피성향	-	-	.18(0.11)**
상 수	57.54	63.98	53.96
총 설명량, $R^2(F)$	.047(2.28)*	.099(3.03)***	.128(3.66)***
고유(증분)설명량, $\Delta R^2(F)$	-	.052(4.00)**	.029(9.11)**

주: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이며, 표 상단 ()안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표준 오차이며, 표 하단 ()안의 수치는 F값임.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모형 II의 경우, 모형 I에서의 독립변인인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에 대인환경변인군을 추가하여 얻은 총 설명변량은 9.9%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었다($F=3.03$, $p < .01$). 그 중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로 설정하고 대인환경변인군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량이 5.2%였는데, 이 증분(고유)설명량 역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F=4.00$, $p<.01$)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의 설명효과를 통제 한 후, 대인환경변인군이 인터넷 몰입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된 변인의 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추가 설명량이 그다지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인환경변인들중 부-모관계 변인이 유일하게 인터넷 몰입과 의의있는 관련성을 있는 반면, 나머지 대인환경변수들[형(자)-제(매)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이 의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부-모관계와 인터넷 몰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이들 간에 부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와 모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 Ⅲ의 경우, 모형 Ⅱ에 대인성향변인을 추가하여 얻은 총 설명량이 12.8%였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의 있었다($F=3.66$, $p<.001$). 그 중 사회인구학적변인군과 대인환경변인군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대인성향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량이 2.9%였는데, 이 증분(고유)설명량 역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F=9.11$, $p<.001$)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과 대인환경변인군의 설명효과를 통제한 후 대인성향변인이 인터넷 몰입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효과가 의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모형 Ⅲ에서 추가된 독립변인(대인성향)의 수가 단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증분(고유)설명량은 적지 않는 것이다. 대인기피성향과 인터넷 몰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이 두 변인이 정적 관련성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타인을 기피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인터넷이 더 몰입한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인터넷 몰입에 대한 각 독립변인(군)별 총 설명량과 고유설명량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인터넷 몰입에 대한 독립변인(군)별 총 설명량 및 고유설명량 비교(n=287)

구분	총설명량	고유설명량 I 통제변인=배경변인	고유설명량 II	
			통제변인= 배경변인+대인성향	통제변인= 배경변인+대인환경
배경변인(4)	4.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인환경(4)	5.7%**	5.2%**	4.7%**	해당 없음
대인성향(1)	4.9%***	3.4%***	해당 없음	2.9%**
전 체	12.8%***			

주 1: 총설명량은 각 변인(군)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별도의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었음.

주 2: ()안의 숫자는 독립변인 수를 의미함.

인터넷 몰입에 대한 총 설명량의 크기는 대인환경, 대인성향,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과 대인환경변인군에 포함된 변인의 수가 4개인 반면, 대인성향변인이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대인성향변인의 설명력은 두드러진 것이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설명효과를 통제한 후 산출한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은 각각 5.2%와 3.4%로 대인환경변인군의 고유설명량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변인군과 더불어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을 각각 추가적인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후 산출한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도 각각 4.7%, 2.9%로 나타나 이 역시 대인환경변인군의 고유설명량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은 사회인구학적변

인군만을 통제하고 산출 한 경우(각각 5.2%와 3.4%)와 사회인구학적변인군과 더불어 대인성향변인과 대인환경변인군을 추가적으로 통제하고 산출한 경우(각각 4.7%와 2.9%)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인터넷 몰입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써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이 서로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갖지 않는 독립적인 차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이 인터넷 몰입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기술하거나 인터넷 중독이 야기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적·정서적 결과들을 탐색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현상을 잘 기술해 주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처방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관련된 설명변인을 탐색하게 되었고, 그 변인들 중 현실공간에서 부딪히는 대인관계환경에서의 불리한 요인과 그로 인한 대인기피 성향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 집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을 설명하는 대인관계 관련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배경(성, 학교급, 부와 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학교성적)과 대인환경(부-모 관계, 형제자매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대인기피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던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군의 ‘성’, 대인환경변인군의 ‘부-모 관계’, 그리고 ‘대인기피성향’으

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인터넷 몰입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못했다. 인터넷 몰입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던 세 변수가 인터넷 몰입과 관련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몰입도가 더 높았으며, 부-모간의 갈등관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인기피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몰입도가 높았는데 이 결과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서주현·유안진, 2001; 김혜원, 2001; 조아미·방희정, 2003)과 일치하며,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 역시 조아미와 방희정의 연구(2003)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이 유의있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는 김희화(2003)연구결과는 지지하지만 김혜원(2001)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 선행연구(박명순·박성은, 2004)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에 몰입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지지되지 않았다. 요컨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변인들과 인터넷 몰입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역점을 두고 분석 했던 것 중 하나는 현실공간에서의 대인관계환경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간 관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졌다. 하지만 형제자매간의 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는 유의있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정도와 또래친밀감과 관련성이 있고(김진희·김경신, 2004),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부모와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와 관련성이 있고(양돈규, 2003), 부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성이 있다(조아미·방희정,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 중독이 모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성이 없다는 조아미와 방희정의 연구결과(2003)와 형제자매의

대화빈도와 관련이 없다는 양돈규(2003)의 연구결과는 지지하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인터넷 몰입과의 관련성은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제자매간, 부모-자녀간, 친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은 반면, 청소년이 직접 개입되지 않는 부와 모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부와 모의 대인관계가 다른 유형의 대인환경보다 청소년들의 삶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부와 모의 대인관계가 가정에서의 다른 유형의 대인관계(형제자매관계 및 부모-자녀관계)환경을 압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납득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관련하여 부와 모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주목할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성격적 특성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대인기피 성향과 인터넷 몰입은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대인관계의 환경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관련한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이 인터넷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인기피 성향은 이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인터넷 몰입관련 설명변수였는데, 다른 여타의 변수와 비교하여 인터넷 몰입을 설명하는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몰입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이 단순히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정책적 개입이 환경정비와 더불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청소년의 대인환경과 대인성향 중 어떤 변인(군)이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군만

을 통제한 후 산출된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은 각각 5.2%, 3.4%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변인군과 더불어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을 각각 추가적인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후 산출한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의 고유설명량도 각각 4.7%, 2.9%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인터넷 몰입에 대해 대인환경이 대인성향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인환경변인군에는 다수(4개)의 설명변인이 포함된 반면, 대인성향은 단수의 변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인성향 변인군의 설명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변인군만을 통제하고 산출한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의 고유설명량과 대인환경과 대인성향을 추가적으로 통제하고 산출한 대인성향과 대인환경의 고유설명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대인환경변인군과 대인성향변인이 인터넷 몰입을 설명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 몰입이 청소년을 둘러싼 대인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대인성향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 몰입과 관련된 정책적 처방 및 개입은 청소년 환경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영역 모두에 걸쳐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된 문명의 이기이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집착하는 현상 즉, 인터넷 중독을 들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은 다른 연령층보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한 인식에서 선행 연구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행동들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라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몰입하는 행동을 놓고 ‘중독’(addiction)이라는 부정적이고 병적인 용어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이 인터넷에 열중하는 행동에 대해 인터넷 중독이라는 진단적이고 규범적인 표현을 통해 인식하기보다는 인터넷 몰입이라는 현상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실태 진단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행동적 결과들을 우려하기에 앞서 인터넷 몰입이라는 현상이 발생된 원인들을 설명하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몰입의 유형별로 그 설명변인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몰입을 단일차원에서 고려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전반적인 인터넷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었지만, 인터넷 몰입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관련 변인을 탐색하게 되면 인터넷 몰입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처방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으므로 이 연구결과의 일반화과정에서 인터넷 몰입과 관련한 지역적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만철·오익수(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Ⅱ).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 강지선(1999). PC통신 사용자들의 고독, 사회불안 및 대처양식과 통신중독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컴퓨터 중독. 충남: 충남대 학생생활연구소.
- 김성중(2000). 또래집단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컴퓨터 게임이용과 충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범(1999).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노(2000). 인터넷 시간과 대인관계 및 심리변화.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0). 청소년의 PC중독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PC중독.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진희·김경신(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5(1), 137-166.
- 김진희·김경신(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5(1), 137-166.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 파악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박경호외(2001). 국내 인터넷, 컴퓨터 등의 사이버중독 실태조사. 서울:정보통신부.
- 박명순·박성은(2004).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몰입과 사회능력 및 행동 발달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13-327.
- 서우석(2004). 인터넷사용과 청소년의 생활만족:학교효과의 다수준분석. 정보화정책, 11(2), 87-103.

- 서우석(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사회화. 정보와 사회, 6, 52-81.
- 서주현·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손경애(200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1(2), 523-548.
- 송명준외(2001). 인터넷중독: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의 하위유형.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5(1), 311-323.
- 송수민·이희경(2002). 청소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3(1), 107-131.
- 성윤숙(2003).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사이버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37-57.
- 안정임·김동규(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어기준(2000). 청소년의 PC중독의 이해.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9, 9-29.
-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2000a).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양돈규(2000b).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 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양돈규(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유승호·정의준(2001). 게임이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2(2), 35-63.
- 윤영민(2000). 인터넷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청소년보호위원회.
- 윤영민(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정책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청

- 소년학연구, 8(2), 199-228.
- 은혁기(2000).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덕로외(2002). 산업체 근로자의 인터넷 중독의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송선(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2003). 청소년의 게임 이용요인과 개인·사회적 요인이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355-380.
- 임은미(1999). 청소년 사이버문화의 이해와 지도방안. 청소년의 사이버문화.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장일순(2000). 한국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8, 65-83.
-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계. 발달, 14, 91-111.
- 조아미·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찬식(2002).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3), 189-210.
- 정기선(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심리사회적 영향. 서울:청소년보호위원회.
-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 서울:청소년보호위원회.
- 최민정(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우울감,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실(2002).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모델. 청소년학연구, 9(3), 337-361.
- 한국정보문화센터(2002). 인터넷중독 상담전략. 서울:정보통신부.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환경론. 서울: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서울: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허인숙·유준상(2004). 친사회적 행동과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8(4), 217-232.
- 황상민, 안규석(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박영사.
- 황주성외(2002).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 Greenfield, D. N.(1999). *Virtual Addiction*.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King, S. A.(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concentric.net/~Astorm?iad.htm>.
-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Available from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ubaddict.html>.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 Young, K. S.(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ust 15, Chicago, Illinois.

ABSTRACT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Environments and Dispositions on Adolescents' Internet-Immersion

Lim, Sung-Taek* · Kim, Sung-Hyun** · Kim, Jin-Ho*** · Bae, Jong-Sun****

This study aimed to test and compar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environments and disposition of adolescents' internet-immersion. The study assumed that adolescents' environmental and dispositional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settings might cause them to be absorbed in using inter-net. 28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asking about their demographic information, perceptions of significant others as interpersonal environments, interpersonal dispositions, and their using inter-net. Adolescents' using inter-net has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ir sexes, mother-father relationships, interpersonal dispositions, but not with sibling, child-parent, peer relationships, and other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rades, SES, etc. Males use inter-net significantly more than females. The more negatively adolescents perceived mother-father relations, the more they were absorbed in inter-net. And adolescents' personal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internet-immersion. A serie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to

*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Sinan Jimyeong Middle School

compa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variable group and dispositional variable of interpersonal setting on their internet-immersions. Both groups of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effects to explain the dependent variable. But interpersonal disposition variable could be stronger in explaining internet-absorption than the counterpart. All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for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Key Words : internet immersion, interpersonal environment, interpersonal disposition

투고일 : 5월 5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